POLICY BRIEFING
ISSUE 26 / 2025. 12.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자료
연구교육 2025-20-206

OECD DAC 수원국 졸업 제도 개요와 주요 논의 동향

1. 들어가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를 "정부 등 공적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주목적으로 양허성 조건을 갖춘 재원을 DAC 수원국 목록에 포함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공적 지원[1]으로 정의하며, 이 정의에 부합하는 지원만을 ODA로 인정한다. 따라서 어느 국가나 기구가 ODA의 대상이 되는지, 어느 국가까지를 ODA 수원국으로 볼 것인가는 OECD DAC의 중요한 제도적 과제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DAC은 연도별 ODA 수원국 리스트(DAC List of ODA Recipients)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와 지역만이 ODA를 받을 수 있다. 동시에, DAC 회원국은 해당 연도에 이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대한 공적 지원만을 ODA 실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DAC 수원국 리스트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매년 발표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에 따른 소득 분류(저소득국·하위중소득국·상위중소득국)[2]를 기본으로 하되, EU 회원국, 전(前) G8 국가, EU 가입이 확정된 국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ODA 수원국에서 제외하고, 유엔(UN)이 정한 최빈개도국(LDCs)[3]은 모두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DAC은 수원국 리스트를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검토 시점에 세계은행 고소득국 기준을 3년 연속 초과한 국가는 리스트에서 제외하는데, 이를 '수원국 졸업(graduation)'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팬데믹, 기후 위기, 지정학적 갈등 등 복합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고소득국 임계값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현행 DAC 수원국 졸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되고 있다. 소득 지표 외의 취약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득국 기준 충족을 근거로 졸업이 이루어질 경우, ODA 수원국에서 졸업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개발 공백과 지속가능성 저해 위험이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OECD(2024)의 분석에 따르면, 1인당 GNI 기준으로 졸업이 임박한 소규모 도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팔라우, 나우루, 세인트루시아, 몬트세랫—은 외부 재원 중 ODA 비중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SIDS가 구조적으로 높은 ODA 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며, 소규모 도서국이 가진 경제적·환경적 취약성과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할 때, 졸업 이후에도 이들이 다시 수원국으로 재편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우려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DAC은 현재의 졸업 절차 및 기준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졸업 예정 국가의 구조적 취약성 반영, ODA 졸업 이후 지원 연속성 확보, 성공적·지속가능한 졸업 조건 설계, 재편입 제도 정비 등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OECDa, 2025). 이에 본 브리핑은 DAC 수원국 리스트와 졸업 제도의 구조를 정리하고, 최근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한국 및 KOICA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OECD DAC의 ODA 공식 정의는 OECD 홈페이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definition and covera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URL: 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oda-eligibility-and-condition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definition-and-coverage.html"

2) 2026 회계연도 세계은행(World Bank)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다. (2024년 1인당 GNI 기준) $1,135 이하: 저소득국(Low-Income Countries, LICs), $1,136 이상 4,495 이하: 하위중소득국(Lower-Middle-Income Countries, LMICs), $4,496 이상 $13,935 이하: 상위중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ies, UMICs), $13,935 초과: 고소득국(High-Income Countries, HICs).

3) LDCs(Least Developed Countries)는 UN이 ①1인당 국민총소득(GNI), ②인적자본 지수(Human Assets Index, HAI: 보건·교육 등 인적 역량 수준), ③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conomic and Environmental Vulnerability Index, EVI)를 종합 평가하여 지정하는 국가군으로, UN이 특정 수원국의 LDC 지위를 유지하는 한 DAC ODA 수원국 리스트에 자동 포함된다.

2. DAC 수원국 리스트의 목적과 구성

DAC 수원국 리스트는 ODA 대상 국가를 식별하고, 공여국 간 ODA 정책과 자원 배분에 공통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는 "어떤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되어 ODA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OECD의 공식적 기준이며, DAC 회원국의 ODA 실적 보고·ODA/GNI 비율 산정에도 직접 적용된다. 현행 OECD DAC ODA 수원국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성된다.

- 기본 범위:

  세계은행의 1인당 GNI 소득 기준 구분에 따라 저소득국(LICs)·하위중소득국(LMICs)·상위중소득국(UMICs)을 포함하고, 유엔이 지정한 최빈개도국(LDCs)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

  · 제외 대상:

  EU 회원국, 전 G8 국가, EU 가입이 확정된 국가(가입 조약 서명 시 리스트에서 제외)

  · 세부 그룹:

  LDCs, LDC가 아닌 저소득국(LICs), LDC가 아닌 하위중소득국(LMICs), LDC가 아닌 상위중소득국(UMICs) 및 일부 지역[4]

3. DAC 수원국 리스트 검토 및 졸업 제도

DAC은 수원국 리스트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Triennial Review)하며, 이 과정을 통해 졸업 여부를 결정한다. 재검토는 우선 세계은행의 고소득국(HIC) 기준[5]을 3년 연속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단순히 소득 기준 충족만으로 졸업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졸업 예정 국가의 경제구조, 빈곤·불평등·고용 수준 등 사회지표의 안정성, 기후 위기나 분쟁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 국제 및 민간 금융시장 접근성, 공공부채 수준과 상환능력, 정치·외교적 환경의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DAC 회원국 간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졸업 여부가 최종 확정되며, 특정 회원국이 졸업 시기나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 졸업 결정이 유예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이 요청되기도 한다.

실제로 2023년 수원국 리스트 검토에서 DAC은 나우루의 졸업을 승인하였으나, 졸업 이후 단기간 내 재원 기반 악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졸업 효력 발생 시점을 2026년 1월 1일로 연기하였다. 같은 검토에서 몬트세랫은 고소득국 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해 졸업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GNI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졸업 결정 자체가 2025년 10월까지 유예되었고, 해당 시점에 졸업이 승인될 경우 나우루와 동일하게 2026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었다. 그러나 2025년 10월 DAC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26년 정기 검토를 2027년으로 연기하고, 나우루와 몬트세랫의 졸업 효력 발생 시점 또한 2027년으로 재연기하는 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두 국가는 소득수준 분류상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결정 및 효력 발생이 모두 2027년까지 보류된 상태에 있다.

졸업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국가는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며, 이후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자 지원은 더 이상 ODA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졸업이 모든 공적 재원 접근의 일괄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다자개발은행의 양허성 자금 창구나 글로벌 기후·환경 기금은 기관별 기준에 따라 졸업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4. 졸업 및 재편입 사례

졸업은 소득 수준 충족과 별도의 종합적 심의 과정 결과로 결정되지만, 수원국 졸업이 곧 졸업국의 구조적 취약성의 완전한 해소나 안정적 발전 경로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졸업 이후 국가가 직면하는 경제·사회적 도전, 외부 충격의 빈도, 경제 기반의 회복력(resilience)에 따라 졸업국의 경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약 30여 개국이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 졸업했으나, 졸업 이후의 궤적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한국은 2000년 수원국에서 졸업한 뒤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이 고도화되면서, 2010년 DAC 회원국(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졸업이 단순히 ODA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 역량 강화와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공여국으로의 역할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일부 국가는 졸업 이후 외생적 충격에 취약해지거나, 경제·재정 기반이 다시 약화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팔라우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가이다. 팔라우는 2021년 졸업이 결정되었으나 관광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한 소득 감소가

4) DAC 수원국 리스트에는 국가 외에도 일부 지역(territories)이 포함된다. 이는 해당 지역이 주권국가는 아니더라도 DAC이 ODA 수원 단위로 인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며, 대표적 사례로 West Bank and Gaza Strip(서안 및 가자지구), Wallis and Futuna(왈리스·푸투나) 등이 있다.

5) 세계은행 소득 수준 분류는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24년 회계연도 고소득국 기준은 1인당 GNI $13,845 USD, '25년 회계연도 기준 고소득국 기준은 $14,005 USD로 고시되었다.

발생하면서 2022년 다시 수원국 리스트에 재편입되었다.

팔라우와 같은 사례는 DAC이 수원국 졸업 결정에 보다 정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절감하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최근 검토 과정에서 나우루와 몬트세랫의 졸업은 소득 기준 충족에도 불구하고 외부 충격 위험성, 자료 신뢰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유예되거나 효력 발생 시점이 조정되고 있으며, 이는 졸업국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경제구조, 사회지표, 기후·환경 취약성, 재정·부채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는 최근의 DAC 논의의 흐름을 반영한다. 이러한 사례를 포함한 DAC 수원국 리스트 변동 현황은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표1> OECD DAC ODA 수원국 리스트

편입	연도	졸업
	2027	(졸업 검토 예정) 코스타리카; 가이아나; 니우에; 팔라우; 파나마; 몬트세랫; 나우루
	2022	앤티가 바부다
	2020	쿡 제도
	2018	칠레; 세이셸; 우루과이
	2014	앵귈라; 세인트 키츠 네비스
남수단	2011	바베이도스; 크로아티아; 마요트; 오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코소보	2009	
	2008	사우디아라비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2006	
벨라루스; 리비아; 우크라이나	2005	바레인
	2003	몰타; 슬로베니아
	2000	아루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지브롤터; 대한민국; 리비아; 마카오(중국);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누벨칼레도니; 북마리아나 제도
	1997	버뮤다; 케이맨 제도; 키프로스; 포클랜드 제도; 홍콩(중국); 이스라엘; 중화 타이베이
	1996	바하마; 브루나이; 쿠웨이트;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1995	그리스
팔레스타인자치지역(웨스트뱅크·가자지구); 팔라우; 북마리아나 제도	1994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에리트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연방; 슬로베니아	1993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1992	프랑스령 가이아나;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레위니옹; 생피에르 미클롱
남아프리카 공화국(흑인지역)	1991	포르투갈
알바니아	1989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공산권 국가	1970s ~1980s	스페인(1983)
아프리카 전 지역(남아프리카 제외); 아메리카 전 지역(미국·캐나다 제외); 비공산권 아시아·오세아니아(호주·일본·뉴질랜드 제외); 유럽: 키프로스, 지브롤터, 그리스, 몰타, 스페인, 터키, 유고슬라비아	1961~1969	

출처 : 송양훈·최영출·공기서·이아연(2024)의 '<표 2> OECD DAC의 수원국 목록 변화'(p.11)를 기초로, 2025년 11월 기준 최신 DAC 검토 내용 및 수원국 분류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함.

5. 수원국 졸업의 영향: ODA 통계 보고·협력 방식 변화

수원국 졸업은 단순히 DAC ODA 수원국 리스트에서의 지위 변경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졸업국 및 해당 국가와 협력 관계에 있던 공여국의 개발재원 구성과 협력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졸업 이후에는 DAC 회원국이 졸업국에 제공하는 양자 지원이 더 이상 ODA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여국의 ODA/GNI 비율 산정 방식 및 전체 개발재원 전략에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공여국은 무상원조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비양허성 금융, 공적보증, 지분투자, 혼합금융(blended finance) 등 ODA 범위를 넘어서는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개발재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력 방식 또한 점진적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졸업이 협력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ODA 중심 협력만으로는 졸업 이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협력, 정책자문, 민관협력(PPP), 혼합금융 등 비 ODA 기반 협력 방식이 확대·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졸업은 협력의 단절이 아니라 협력의 방식과 재원 조달 경로가 다양화되는 방향으로의 전환 과정이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졸업 이후 협력의 지속가능성이 좌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국제사회가 TOSSD[6](총공적재원) 등 ODA 외 공공·민간재원을 포착·보고하기 위한 지표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은 졸업 이후 협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대응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6. 졸업 제도 강화 관련 최근 논의

DAC 회원국, 수원국 정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팬데믹·기후위기·분쟁 등 복합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수원국의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방식이 국가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이들 이해관계자와 SIDS·MICs 당사국들은 고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후재난·경제 규모의 제약·외생적 충격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OECD, 2025b).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응해 DAC은 2025년 3월 '강화된 졸업 프로세스(Strengthened ODA Graduation Process)'를 제안하였으며(OECD, 2025a), 이의 승인 및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지속 중이다. 2025년 제안된 강화된 수원국 졸업 절차는 졸업 과정 전반을 더욱 예측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수원국(졸업 예정국) 주도적 형태로 재설계한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을 이룬다.

강화된 프로세스는 먼저 잠재 졸업국에 대해 약 10년 전부터 졸업 가능성을 사전 통지하도록 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DAC 사무국과 수원국 간에 ODA 의존도, 취약성, 제도적·재정적 역량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공식화해 졸업 준비의 기반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잠재 졸업국이 필요에 따라 '지속가능한 졸업 전략(Sustainable ODA Graduation Strategy)'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 전략이 수원국 정부만이 아니라 DAC 회원국, 다자개발은행(MDBs), 시민사회,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포용적 협의 과정을 통해 마련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기존 졸업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국가 주도성(ownership)과 파트너십의 폭넓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부분이다.

졸업 3년 전에는 중간 점검(n-3 review)을 실시해 경제 동향, 외생적 충격, 기후·환경 취약성 등을 재평가하고, 필요시 졸업 일정의 조정 또는 유예(defer)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기후재난이나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들에 특히 중요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새 프로세스는 졸업 이후 단계까지도 포괄한다. DAC은 졸업을 단순히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준비-전환-사후협력(Post-ODA)으로 이어지는 연속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졸업국이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국가주도성, 투명성, 포용적 파트너십 등)을 졸업 제도에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편안 제안에 따라, DAC은 다음 수원국 졸업 검토(기존 2026년 예정)를 2027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추진하고 있다(OECD, 2025c). 이는 강화된 졸업 프로세스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존 졸업 후보국들의 일정 조정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이다.

이와 같이, DAC의 최근 논의는 졸업을 단일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취약성과 상황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전환 과정'으로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소득 기준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별 여건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는 제도로의 진전이며, 미래의 졸업국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ODA 이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라 할 수 있다.

6) TOSSD(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되는 모든 공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 통계 체계로, ODA 및 ODA 외 다양한 개발재원을 포괄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OICA 정책브리핑 제 14호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한국 및 KOICA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을 보유한 국가로서, 졸업 제도의 운영 과정과 이후 협력 변화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축적해 왔다. 2000년 졸업 이후 비교적 짧은 시기에 공여국 지위를 확보한 한국의 경험은, ODA 졸업이 단순히 DAC의 해당국에 대한 ODA 지원 종료 결정이 아니라 협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향후 졸업이 예상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단절이 아닌 '전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는 협력 재구조화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공여국이자 과거 수원국이라는 이중적 경험을 통해, DAC이 추진 중인 '강화된 졸업 프로세스(Strengthened ODA Graduation Process)' 논의에 현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취약성 평가, 조기통지, 졸업 과정에서의 협의 구조, 전략 수립 방식 등 새롭게 도입된 절차에는 실제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경험과 국가 간 관계 설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은 이러한 제도적 논의에 현실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한편, 강화된 졸업 제도는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협력 수요가 점차 제도·정책·기술 역량 강화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일부 중소득국들이 ODA 졸업 이후의 부담을 우려하며 완만한 전환이나 단계적 협력을 선호하는 현실적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변화의 초점은 "졸업 자체"에 있지 않고, 각국이 처한 상황과 선택을 존중하며 협력의 형태와 범위를 유연하게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KOICA가 축적해 온 기술협력, 정책자문, 제도·조직 역량강화 중심의 경험은 졸업 전후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된다. KOICA는 무상원조 기관으로서 ODA 외 비양허성 금융이나 지분투자 등 다른 재원수단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졸업국의 협력 수요가 재원 제공보다 정책·제도·기술 중심의 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진다. 또한 기후재원·민간재원 등 여타 개발재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KOICA는 이를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협력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결국 강화된 ODA 수원국 졸업 제도가 제기하는 핵심 질문은 "언제 협력을 종료할 것인가"가 아니라, "각국의 전환 속도와 여건에 맞춰 어떤 협력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이다. 한국은 수원국 졸업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논의에 현실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KOICA는 이러한 관점을 국가별 협력 전략과 실행모델로 구체화하여, 졸업 전후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협력 구조로 발전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KOICA ODA연구교육원

[참고문헌]

- OECD. 2024. Helping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Graduate to Success. Paris: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 OECD. 2025a. Strengthened Process for Graduation from the DAC List of ODA Recipients (DCD-DAC(2025)4-REV1). Paris: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 OECD. 2025b. Graduation from the DAC List of ODA Recipients (DCD-DAC-RD(2025)3). Paris: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 OECD. 2025c. Proposal to Postpone the 2026 Review of DAC Recipients (DCD-DAC(2025)55). Paris: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 송양훈, 최영출, 공기서, 이아연. 2024.「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졸업 기준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GNIPC)과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 대한 고찰」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9(1): 3-28. https://doi.org/10.34225/jidc.2024.19.1.3

[참고 페이지]

- OECD DAC ODA 수원국 리스트:
https://www.oecd.org/en/topics/oda-eligibility-and-conditions/dac-list-of-oda-recipients.html#oda-recipients-list
- 세계은행 소득 수준 구분 기준 및 소득수준별 국가 리스트:
https://datahelpdesk.worldbank.org/knowledgebase/articles/906519-world-bank-country-and-lending-groups
- UN LDCs 리스트:
https://policy.desa.un.org/least-developed-countries